

## 칼뱅의 정치윤리가 한국개신교회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명배 (숭실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사상적 배경

### III.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1.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Two Kingdoms)
2. 루터적 두 정부론(Two Regiments): 이중적 통치질서로서 교회와 세속정부

### IV.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나타난 정치윤리

1. 그리스도 주권론
2. 저항권 문제

### V. 칼뱅의 정치윤리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

1. 칼뱅의 정치윤리가 끼친 직접적 영향: 에큐메니칼 진영의 민주화-인권 운동
2. 칼뱅의 정치윤리가 끼친 간접적 영향: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참여
3. 칼뱅의 정치윤리가 끼친 부정적 영향: 보수진영의 정교분리론과 국가조찬기도회

### V. 나가는 말

---

• ABSTRACT •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calvin's political ethic i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to examine it's effects in Korean Protestant Church. Calvin's concept on the Relation Church and State will be summarized as two types. First type is the Augustus' two Kingdoms. Calvin takes up the Augustinian tradition in *Institute*. It means by the struggle of the city of God against the city of devil, a conflict which rules world history until the end. Calvin's second type is the Luther's the Doctrine of two Regiments. According to Luther, God has instituted two different regiments for the delimitation and dissolution of the devil's power: the Spiritual regiment and the worldly regiment. In the worldly regiment law, good works, reason, the punishing sword, and rewards for good deeds are valid. Calvin had received the Luther's the Doctrine of two Regiments in *Institute*. Meanwhile, Calvin's political ethic in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is the Lordship of Christ. The teaching that the Lordship of christ already now permeates every area of life and thus calls christians everywhere and without division into obedient discipleship is usually attributed to the Reformed tradition. Calvin powerfully had asserted the teaching in *Institute*. And also, Calvin had the negative view in the right of resistance, he advises people to submit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according to Romans 13:1. But calvin had asserted two possibilities in the right of resistance. One is the right of resistance against tyranny, the other is the right of resistance toward the authorities against God. Finally, According to my study, Korean Protestant Church divided into three Group in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rel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from 1970's to 1980's, Ecumenical Group had devoted to democratization and human dignity movement, Conservative Group had devoted to evangelization, asserting the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and Evangelical Group devoted to evangelization and democratization since 1985. Excepting Conservative Group, Ecumenical Group and Evangelical Group has devoted to democratization and human dignity under Calvin's the Lordship of Christ

**Key words** : State, The Lordship of Christ, Ecumenical Group, Evangelical Group

## I. 들어가는 말

교회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또는 교회는 국가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이러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신약성서를 비롯하여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사 전통 속에서 당대의 역사적 상황과 더불어 신학적으로 끊임없이 논쟁되어온 문제이다. 더욱이 제 2차 세계 대전이후 교회와 국가의 관계, 좁은 의미로 교회의 사회참여문제가 첨예화되었고, 한국 개신교회는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 운동 속에서 기독교청년대학생들과 신학생, 그리고 NCCK를 중심한 지식인, 신학자, 목회자들에 의하여 사회참여가 실천되었다.<sup>1)</sup>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한국개신교회는 개 교회 마다 나눔과 섬김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봉사(디아코니아) 차원에서 사회참여를 활발히 실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국개신교회의 사회참여와 사회봉사에도 불구하고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신뢰도와 영향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필자는 1970-80년대 한국교회가 활발하게 수행한 사회정치참여의 쇠퇴가 그 원인의 하나로 파악한다. 특히 역사와 사회참여를 강하게 지닌 개혁교회 전통의 장로교단들이 21세기에 들어와 에큐메니칼 운동과 역사 변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교회와 국가, 혹은 문화의 가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역사참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던<sup>2)</sup>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정치윤리를 살펴보고, 또한 한국교회의 역사참여 전통을 되돌아봄으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를 진

1) 김명배,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서울: 북코리아, 2009). 415.

2) 박정신, 「구한말 조선에 온 칼뱅주의 구학과」,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 인식』 제33권 (3호), 168-169.

단해 보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점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형성의 사상적 배경을 연구한다. 칼뱅 이전의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사상적으로 발전하였고, 그 가운데 칼뱅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본 논문은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살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은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본질, 그리고 그 임무와 기능 등 교회론이나 국가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문자 그대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칼뱅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논구하고자 한다. 셋째로 이 논문은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나타난 정치윤리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주권론과 그의 저항권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뱅의 정치윤리가 한국교회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해방 후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사회 민주화와 인권 운동 속에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칼뱅의 정치윤리의 부정적 영향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II.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의 사상적 배경

칼뱅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급진적 종교개혁가들의 교회와 국가관, 그리고 종교개혁 1세대인 루터의 두 왕국론의 영향을 받았고, 이것을 자신의 신학적 사상과 틀을 통하여 역사와 문화책임적인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중세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와 국가

의 관계가 모순과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예속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는 세상 국가는 교회의 시녀로, 교회는 사회의 이상형으로 보아 중세 교황절대주의 혹은 교회절대주의 시대를 열어 중세 황금기의 상징적 인물이 되었다.<sup>3)</sup>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절대주의는 국가와 사회 그리고 문화의 '세속적' 가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위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가치의 세계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질서적 교회주의에 예속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sup>4)</sup> 한편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국가와 사회, 문화와 역사, 그리고 기성교회들인 로마 가톨릭교회, 루터교회 및 칼뱅 등의 개혁교회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교회로 복귀를 내세우며, 신약성서의 산상수훈 등에 나타난 제자직(disciplenship)과 예수님의 명령들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특히 토마스 뮌저와 멜키오르 호프만은 종말론적 천국을 지상에서 실현하기 위해 폭력까지 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성령을 강조하여 주관적 경험의 소유자라야 선민이고, 이 선민들이 지상천국을 도래시킨다고 하였다.<sup>5)</sup> 이들은 두 왕국이 상호교류, 균형, 독립성과 유기성의 관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과격한 분리 혹은 천년왕국으로 일원화 하는 것으로 보였다.<sup>6)</sup> 이러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와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칼뱅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국가의 우위에 있는 일원론적 계층질서를 주장하였고, 급진적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국가의 극단적 분리주의를 지향하였다. 그러므로 칼뱅은 이 양극단에 반대하여 그의 신학적 방법론인 중도

3) 이형기, 『본회파의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1), 300.

4) 이형기, 「역사적 맥락에서 본 루터의 두 왕국사상과 그의 직업관」,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와 신학』 제14권, 1981, 147.

5) 이형기, 앞의 책, 317.

6)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 장로회신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7, 95.

의 길(Via Media)을 통하여 그의 『기독교강요』와 기타 저술들에서 종교개혁적인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펼치게 되었다.

한편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종교개혁가는 루터였다. 루터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적 두 왕국론(Dual of two kingdoms)을 주장하였다. 루터는 그의 저작에서 세상 나라 혹은 불신자의 나라를 “세상적 통치”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혹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영적인 통치”라 불렀다.<sup>7)</sup>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인 통치”와 ‘세상적인 통치’는 예루살렘과 바벨론, 가인과 아벨, 선과 악, 하나님과 악마간의 긴장과 갈등 혹은 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루터가 목시문학적 종말론에 기초한 어거스틴 전통의 두 왕국론을 그의 저작 전반에 걸쳐 그대로 전승한 것이다.<sup>8)</sup> 그러나 루터는 1523년의 『세속정부에 관하여』 이후 저작에서 교회와 국가를 “두 정부”(Two governments)라는 하나님의 이중적 통치방식으로 말한다. 즉 하나님은 한편으로 영적 정부인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속정부의 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의 두 왕국론은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과 두 정부론을 상호불가분리적으로 연결시킨 이중의 두 왕국론을 이룬다. 그런데 이 루터의 두 왕국론은 중세의 성, 속을 구분하는 계층질서적 성직체계를 부수었고, 국가의 독립과 극단적 세속화로 나아가는 것에 반대하여 세속사회도 하나님의 창조세계임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루터의 사상은 종교개혁적 세속화의 모델을 제시하였고, 칼뱅과 그 이후의 개혁자들에게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sup>9)</sup>

마지막으로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상은 그 자신의 신학

7) 이형기, 『종교개혁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57-58.

8) Jürgen Moltman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64.

9) 김명배, 앞의 글, 56-57.

적 구조와 틀에서 기인하였다. 헤르만 바우케(Hermann Bauke)는 칼뱅의 신학 형식을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중 하나로 “성서주의”를 든다.<sup>10)</sup> 그에 의하면, 칼뱅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의 모든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했던 신학자요, 성서에 매여 있던 주석가였다. 또한 그의 신학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말씀의 신학이었으며, 마찬가지로 그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성경에 정초하여 전개되었다는 것이다.<sup>11)</sup> 또한 루이스 배틀즈(F. Lewis Battles)는 칼뱅의 신학을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원리로 “대칭적인 구조”(antithetical structure)를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극단 사이의 바른 중간 길을 의미한다. 그는 이미 칼뱅의 Psychopannychia와 신약성경 번역 서문에서 이 원리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칼뱅이 『기독교강요』전체에서 로마 가톨릭과 좌경화 종교개혁자들의 양극단의 잘못된 신앙과 그 한계를 보여 주면서 진리의 중도(Via Media)를 걸어갔다고 주장한다.<sup>12)</sup> 한편 빌헬름 니젤(Niesel)에 의하면, 칼뱅의 신학의 구조는 “그리스도 중심주의”이다. 니젤은 칼뱅에게 궁극적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sup>13)</sup> 그러므로 우리는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의 신학의 중심을 형성하는 “성서중심주의”, “대칭적인 구조”,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10) Hermann Bauke,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Leipzig: J. C. Hinrichs, 1922)

11)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35-37면. 바우케는 칼뱅신학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특성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변증적인 합리주의다. 둘째 특성은 ‘상반되는 것들의 결합’(complexio oppositorum)이다. 셋째 특성은 성서주의(biblicism)이다.

12) Ford Lewis Battles, *Interpreting John Calvin* (Baker Books, 1956), 36.

13) Wilhel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7), trans by Harold Knight, 231.

### III.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 1.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Two Kingdoms)

칼뱅은 어거스틴에서 루터에 이르는 두 왕국론의 맥락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이해했다.<sup>14)</sup> 어거스틴은 A.D 413년의 저작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도성,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도성’과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탄의 도성’을 구별하여 이 두 도성이 역사 속에서 서로 병존하면서 대립, 갈등 속에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이 대립과 갈등은 기본적으로는 두 도성의 구별과 대조,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끝나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기초한 이원론적인 역사이해에 기초하여 있다.<sup>15)</sup> 루터는 이러한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을 자신의 저작에 받아들였고, 칼뱅 역시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을 『기독교 강요』와 그의 주석서에서 피력하고 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을 묘사한다.

전자는 내적인 정신을 규제하며, 후자는 외적인 행동을 규제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영적인 왕국이라 부르고 후자를 정치적 왕국이라 부른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한 것과 같이 이 둘은 항상 따로 따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쪽을 고려할 때에는 다른 쪽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말하자면 사람 안에는 이른바 두 세계가 있으며, 각 세계에는 서로 다른 왕과 서로 다른 법이 다스

14) 어거스틴과 칼뱅에 대한 비교연구는 안인섭의 “칼빈과 어거스틴: 그 비교연구의 한 방법론과 실제”, 『칼빈연구』 제 2집, (서울:한국장로교출판사, 2005)가 있다. 여기에서 안인섭은 칼뱅은 16세기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거스틴은 45세기 로마 시대의 북아프리카라는 역사적 배경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비교 고찰하여야 하며, 또한 그들의 성서 해석이 담긴 칼뱅의 『기독교 강요』와 어거스틴의 『신국론』의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15) Jürgen Moltmann,, 앞의 책, 84.

린다.<sup>16)</sup>

여기에서 “영적인 왕국”과 “정치적 왕국”은 선과 악, 하나님과 악마간의 긴장과 갈등 혹은 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날드 G. 블러쉬는 칼뱅이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의 영향을 받아 ‘사악한 나라’인 악마의 나라가 ‘의의 나라’에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두 왕국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칼뱅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 악마의 공격대상은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고 믿었으며, 그리스도의 왕국과 교회를 거의 동일시하였다고 보았다.<sup>17)</sup> 그러므로 칼뱅의 두 왕국 사상은 어거스틴에 이어 루터가 주장한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을 받아 성령의 통치하에 사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렇지 아니한 이 세상을 대조 시키고 있으며, 루터와 비슷하게 이 두 왕국 사상에 그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주장을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뱅이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라 목시문학적인 종말론에 기초한 두 왕국 사상을 그의 저작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루터적 두 정부론(Two Regiments): 이중적 통치질서로서 교회와 세속정부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악마의 나라”사이의 긴장과 갈등 혹은 투쟁에 근거한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을 받아들이고, 1523년『세속권세에 대하여』 이후, 중세 로마 가톨릭 혹은 중세 인문주의자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16)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1559),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The Westminster Press, 1960), III, 19.15

17) Donald G. Bloesch, *Essentials of Evangelical Theology: Life, Ministry & Hope* Vol II, 이형기, 이수영 공역,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II』(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192.

‘두 정부’ 즉 교회와 국가라는 이중적 통치방식으로 다스린다는 ‘두 정부론’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칼뱅도 이미 세네카의 주석에서 이 이중적 통치방식을 언급하며, 『기독교 강요』 제3권과 제4권에서 교회와 국가를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신 통치제도로 파악하는 “두 정부론”(duplex in homine regimen)을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처럼, 통치에 있어서도 영적통치와 국가적 통치를 구분하였다.<sup>18)</sup>

인간에게는 두 정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정부로서 양심에게 경건과 하나님 경외를 명령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정부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들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 둘은 대개 ‘영적 관할권’과 ‘현세적 관할권’으로 불린다. 전자의 형태의 통치는 영혼의 삶을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후자의 형태의 통치는 현세의 관심사들에 관련된다.<sup>19)</sup>

그런데 칼뱅은 이 “두 정부” 가운데 하나인 교회 곧 ‘영적 정부’ 혹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즉, 그는 그리스도의 화해의 실현, 즉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이신칭의, 칭의와 화해, 이중적인 말씀과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인간, 예정론과 교회론을 논함으로 ‘영적 정부’ 혹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sup>20)</sup> 이어서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칼뱅은 “영적 정부는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양심이 훈련을 받는 곳이고,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게 하며, 죽을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이 생명 속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축복을

18) 조용훈, 「칼뱅의 정치사상과 그 사회윤리적 함의에 대한 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장신논단』 제38집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2010), 221.

19) *Institutes*, III, 19, 15.

20) 이형기, 『기독교강요 요약』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6), 442.

예지하도록 한다.”<sup>21)</sup>고 말한다. 즉 칼뱅은 교회, 곧 ‘영적 정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지탱시키려 하시는 은총의 내적 수단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칼뱅에게 있어서 영적인 정부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것이다.

한편 칼뱅은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방식인 “세속정부”에 관하여서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서 다루었다. 여기에서 칼뱅은 하나님께서는 현세의 삶에서 주로 우리 육체를 대상으로 일하시는데, 그 방법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세우신 세속정부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한다.

세속정부는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보호하고, 우리의 생활을 인간사회에 일치하도록 이끌며, 우리가 사회에서 의롭게 행동하도록 선도하고, 서로를 화해케 하며, 일반적인 평화와 평정을 증진시키는 것이다<sup>22)</sup>

칼뱅에 의하면, 국가(세속정부)는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는 정치적 임무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종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종교적 임무를 지닌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시민들의 세속생활 뿐만 아니라 영적 생활도 돌볼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칼뱅은 국가의 존재이유는 일차적으로 “영적정부” 내지는 “그리스도 왕국”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이유에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며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다. 결국 칼뱅의 이러한 주장은 교회와 국가를 하나님의 두 통치질서, 즉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는 영적정부인 교회의 말씀을

21) *Institutes*, IV, 20, 2.

22) *Institutes* III, 20, 2.

통하여 다스리고, 왼손으로는 세속정부의 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루터의 두 정부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칼뱅의 ‘이중 정부론’은 로마 가톨릭과 급진주의적 재세례파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칼뱅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와 국가를 혼합하여 국가를 단지 교회에 종속되는 기구로만 취급하는데 반대하였다. 그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는 “영적이며 내적인 인간에게 속하며 영원한 삶과 관계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적 정의와 외적 도덕의 확립과 관련된 것”<sup>23)</sup>이다. 칼뱅은 또한 로마 가톨릭보다 국가 자체를 거부하고 무정부적인 성향을 지닌 급진주의자들을 더 경계하고 반대하였다. 칼뱅이 볼 때 급진주의적 재세례파들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는 핑계로 왕이나 통치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방종상태를 즐기려는 광신자들이었다.<sup>24)</sup> 그러므로 칼뱅은 로마 가톨릭과 재세례파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의 길을 가고자 했던 것이다. 칼뱅에게 두 왕국(정부)은 한 왕국(정부)으로 혼합되거나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국가를 교회화해서도 안되고 재세례파처럼 분리할 수 없다. 이러한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이중적 통치방식인 루터의 두정부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25)</sup>

23) *Institutes* III, 20, 1.; 박경수, 앞의 책, 216.

24) *Institutes*, IV, 20, 1-2.

25) 윤철호,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 『예수 그리스도와 사회』(서울: 한국장로회출판사, 1993), 129.

## IV.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나타난 정치윤리

### 1. 그리스도 주권론

칼뱅은 하나님의 통치영역을 단순히 '영적 정부'인 교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가, 역사, 사회, 인간공동체 일반의 인류역사 전체를 포함시켰다. 하나님은 창조자, 유지자, 통치자, 구속자로서 당신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 교리가 그의 다른 모든 교리의 기초와 토대를 이루었다.<sup>26)</sup>

칼뱅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여 이 자연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를 섭리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sup>27)</sup> 따라서 칼뱅은 세속 국가의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통치 영역으로 보았다. 그는 국가 영역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존재 근거와 이유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신학적 의미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세속정부는 두 가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참된 종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의를 증진시키는 일이고, 둘째는 백성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사회복지를 도모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칼뱅은 세속 통치자들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돌판에 대해서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sup>28)</sup> 그러므로 칼뱅에 의하면,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신적 권위를 부여 받은 하나님의 대표자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며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공직자들과 법의 제정, 그리고 공평무사한 판결 등을 통하여

26) W. Stanford Reid, *John Calvin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홍치모, 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49.

27) *Institutes*, I, 5.7.

28) *Institutes* III, 20, 9.

실현된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며 세상을 통치하며,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sup>29)</sup> 그러므로 칼뱅은 루터에 비해 국가에 더 많은 긍정적 가치와 적극적 역할을 부여했으며,<sup>30)</sup> 이것이 루터와 다른 칼뱅의 국가관이다.<sup>31)</sup>

이와같이 칼뱅은 하나님의 전 포괄적인 주권사상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신자와 교회 생활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실현되기를 소원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따라서 칼뱅은 이 세상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그리스도 주권론’은 칼뱅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사고로부터 기원한 것이다.<sup>32)</sup>

그런데 이러한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은 개혁신학 전통으로 전해졌으며, 19C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과 20C의 대표적인 개혁신학자 칼 바르트의 “바르멘 선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천명되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영역주권론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므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외쳤다. 그는 하나님의 왕권아래 모든 정치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를 두었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의 전 영역에서 파악하고 이를 가르쳤다.<sup>33)</sup> 칼 바르트의 “바르멘 선언”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자신의 책임성을 인식한다.<sup>34)</sup> 이러

29) *Institutes*, IV, 20. 4.

30) 박경수, 『칼뱅의 국가론』, 『교회의 신학자 칼뱅』(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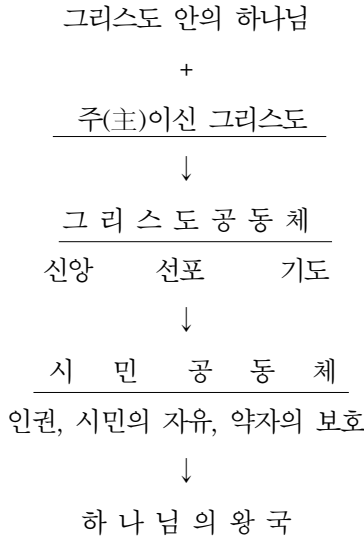
31) 宮田光雄, 『聖書の信仰』, 양현혜 역, 『국가와 종교』(서울: 삼인, 2003), 91.

32) 윤철호, 앞의 책, 130.

33)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175.

34) Jürgen. Moltmann, 앞의 책, 196-98.

한 개혁신교회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은 “문화변혁과 역사 책임적 신학”의 특징을 지니는데,<sup>35)</sup> 궁극적으로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몰트만은 칼뱅과 그의 전통을 이어받은 개혁신교회의 두 왕국론을 ‘그리스도의 주권설’로 파악하고, 그리스도 공동체와 시민공동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sup>36)</sup>



## 2. 저항권 문제

칼뱅은 백성들은 로마서 13:1-2, 디도서 3:1, 베드로전서 2: 13-14, 디모데전서 2:1-2 등의 말씀에 의거하여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고 공직자에게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35) 김명룡, 앞의 책, 172.

36) Jürgen Moltmann,, 앞의 책, 79-95.

통치자들에 대한 백성의 첫째 의무는 그들의 직무를 하나님 내리신 권세로 알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런 이유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대표자들로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이다.(중략) 이 의무에서 다른 의무들도 따라 나온다. 즉 백성은 통치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선포에 복종하든 아니면 세금을 지불하든 아니면 공역에 참여하고 국방의 짐을 지든 아니면 그 밖의 그들의 명령을 실행하든 등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sup>37)</sup>

특히 칼뱅은 로마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롬13;1-2)를 해석하면서 “위정자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임명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이다. 심지어 악한 공직자 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다.<sup>38)</sup> 그렇다면 통치자가 폭정을 일삼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통치자가 “법과 특권과 재판과 청탁서를 돈을 받고 처리하며,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도짓을 일삼고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악을 행할 때에는 어찌할 것인가?”<sup>39)</sup> 칼뱅은 그런 때 일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인내하라고 말한다.

왕들의 악이 도를 넘을 지라도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우리가 폭군에게 치참한 고문을 당하거나, 탐욕스럽거나 방탕한 군주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게으른 군주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거나,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주에게 모욕을 당한다면 먼저 자신의 악행을 생각

37) *Institutes* IV. 20. 22.

38) 윤철호, 앞의 책, 129.

39) 조용훈, 앞의 책, 226.

하여야 할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악행에 대하여 그런자들을 회초리로 삼아 틀림없이 징계하신다.……그런 악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sup>40)</sup>

칼뱅은 “악한 왕”이나 “불의한 집권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sup>41)</sup> 칼뱅은 체념과 성찰, 십자가를 지는 태도와 경건, 칼뱅은 이런 태도가 철저히 성경적이라고 믿고, 모든 사람에게 철저한 동의와 복종을 권하는 것이다.

그러면 통치자에게 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인가? 칼뱅은 두가지를 제시한다. 먼저 칼뱅은 “만일 왕들의 횡포를 억제하라고 임명된 백성들의 관리들(magistratus popularis)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서 왕들의 맹렬한 방종에 저항하는 것은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sup>42)</sup>고 밝힌다. 백성들의 관리들에게는 백성들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들이 왕의 폭정과 방종을 방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에 대한 유기이며 백성들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것이다. 칼뱅은 이런 백성의 관리들의 예로서 고대 스파르타의 감독관들, 로마의 호민관들, 아테네의 장관들을 언급하고 있다.<sup>43)</sup> 또 다른 저항의 가능성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명할 경우이다. 칼뱅에 의하면, “통치자들에게 복종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sup>44)</sup>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나 첫째는 하나님에게 바쳐야 하고 통치자에 대한 복종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만일 통치자가 하나

40) *Institutes*, IV, 20, 29.

41) *Institutes*, IV, 20, 21.

42) *Institutes*, IV, 20, 31.

43) 박경수, 앞의 책, 234.

44) *Institutes*, IV, 20, 32.

님의 뜻에 거스리는 명령을 한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사도행전 5:29)는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의 저항권은 위정자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합헌적 중간 통치자를 통하여 위정자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칼뱅의 저항권의 핵심이다. 그렇지만 칼뱅은 어디까지나 수동적인 불복종을 말하였지 무력으로 대항하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칼뱅의 사상은 이후 프랑스에서의 상황 악화로 인해 칼뱅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인 저항이론으로 발전되어 갔다.<sup>45)</sup>

## V. 칼뱅의 정치윤리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 1970-1980년대를 중심으로<sup>46)</sup>

### 1. 칼뱅의 정치윤리가 끼친 직접적 영향: 에큐메니칼 진영의 민주화·인권운동

1970, 8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입각한 문화 변혁적이고 역사 책임적 영향은 매우 컸다.<sup>47)</sup> 한국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기독교장로회의 역사참여는 장공 김재준(1901-1987)의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에 의해 계승되었다.<sup>48)</sup> 그런데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

45) 박경수, 앞의 책, 235면에서 재인용.

46) 이 부분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개신교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제 5장 (장신대, 2007)과 저서 『해방 후 한국기독교 사회 운동사』(북코리아, 2009)의 제 5장에서 수정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47)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215.

48) 이덕주, 「김재준 목사의 편지」, 감리교신학대학교, 『세계의 신학』, 2003, 가을호, 148.

권운동의 거목인 김재준은 사실상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기초한 칼뱅 전통의 정치신학과 역사참여라는 신학노선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 주권론’에 기초한 김재준의 역사참여 신학은 그가 1945년 8월 해방정국에서 한 기독교자 지성인으로 발표한 『기독교의 건국이념』이라는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논문의 첫 문단에서 이미 김재준은 그의 역사참여적인 정치신학의 기초를 드러내고 있다.

모든 권위의 근원과 최종적 소재는 하나님이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관료주의 정당, 민주주의 국가 전체로서의 인민, 전 국민의 총의의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무제한적 권위를 주장함은 잘못인데, 그것들도 인간의 유한성과 집단적 죄악성에 물들여져 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동등시 될 수 없다<sup>49)</sup>

그래서 김경재는 김재준의 정치신학이 칼뱅 전통의 ‘하나님 주권론’에 있음을 말한다.

장공의 정치신학은 개혁파 교회전통의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기본 축을 골간으로 하고, 사회적 책임윤리를 강조하면서 이상 타파적인 예언자적 비판정신을 강하게 담지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만’을 강조하는 칼뱅적 개혁파 전통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일체의 정치이념이나 권력구조나 체제를 절대화하는 ‘정치권력’의 이상화를 예언자 정신으로 타파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려고 한다. 신구약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유토피아적 희망은 자유, 정의, 평화가 입 맞추는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 실현이라는 것이다.<sup>50)</sup>

49) 김재준, 『김재준 전집』 제1권(서울: 한신대출판부, 1992), 161; 김경재, “장공 김재준의 정치신학: 신학적 원리와 사회, 정치적 변혁론”, 한국신학연구소,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279에서 재인용.

50) 김경재, 앞의 책, 294.

칼뱅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뿌리를 둔 김재준의 정치신학 노선은 이론상으로 역사현실참여라는 진보적 신학노선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의 역사 현실참여 신학은 현실을 규정하는 가장 실질적인 정치권력의 역학관계와 그 힘의 왜곡된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 발언과 저항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sup>51)</sup> 한편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문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1973년 5월 20일 발표된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앙고백하였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대신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고 믿는다. (중략) 우리는 성령이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참여할 것을 요구하신다고 믿는다. 이 영은 메시아의 나라를 위한 영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적, 정치적 개조를 위하여 싸울 것을 명령한다.<sup>52)</sup>

이 선언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회와 역사 창조에 우리를 부르시며, 사회정치적 개조를 위하여 싸울 것을 명령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철저히 역사와 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뱅의 개혁교회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이라 이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서구의 교회들은 이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선언』을 “제 2의 바르멘 선언”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51) 김경재, 앞의 책, 280.

5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 운동』(1)(서울: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252.

그러므로 이상에서 볼 때 우리는 장공 김재준에 의해 시작된 한국개신 교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신학적 기반이 칼뱅의 개혁교회 전통의 ‘그리스도주권론’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민주화와 인권 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 선언문인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선언』이 ‘하나님의 주권론’에 입각하여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NCKK를 중심한 예큐 메니칼 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칼뱅의 개혁교회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기초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칼뱅의 정치윤리가 끼친 간접적 영향: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참여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는 칼뱅 이래 최대의 칼뱅주의 신학자로 호칭되며,<sup>53)</sup> 19세기 위기에 처한 칼뱅주의의 정신을 복구하고 계승하면서 정치와 역사와 문화의 문제에 답변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할 것을 외쳤고, 하나님의 왕권 아래 모든 정치와 경제, 과학, 교육, 문화를 두었다.<sup>54)</sup> 그리하여 카이퍼는 대학을 세워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으며, 1880년 자유대학 설립 시 행한 연설에서 “그리스도 영역주권론”을 주장하였다.<sup>55)</sup>

두 영역에 있어서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에 있어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 영역에게 그들 자신의 기구와 그리고 개인들에게는 그들 자신의 책임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한번 말하거니와 상호 관계되어 지상적인 나라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53) Bernard Ramm, *The Evangelical Herita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권혁봉 역, 『복음주의 신학의 흐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185쪽.

54)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175쪽.

55) 서철원, “카이퍼의 개혁사상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서울: 한국기독교사상 연구소, 1989), 66쪽.

수 있는 길을 제공함으로써 하늘의 나라에 이바지하는 데 비하여 교회는 세  
상적인 조국에 존경과 복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sup>56)</sup>

그런데 카이퍼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구적  
(insitution)이기 보다 개인적(individual)으로 생각하였다. 카이퍼는 기구  
로서의 교회는 국가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유기체(organism)로서 교회는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의 구성원들이 시  
민이면서 동시에 그 통치자도 되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기구적인 의미에  
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기독교  
국민’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적인 범주에 대해 우선권을  
주었고<sup>57)</sup>, 기독교인의 사회·정치참여를 긍정하였다.

복음주의 진영<sup>58)</sup>의 사회참여 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며, 기윤실을 설립  
한 손봉호는 카이퍼(A. Kuypers)의 영향을 받아 기독교신앙이 내면적이며  
영적인데 그치지 않고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 그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신칼뱅주의 문화관을 확립하였다.<sup>59)</sup> 그리하여 그는 칼뱅의 ‘그  
리스도 주권론’을 이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그리스도 영역주권론’에 입각

56) Wilhelm Kolffhaus, *Dr. Abraham Kuypers*(Elberfeld), 181쪽.

57) 헬무트 티르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신학적 논쟁,” 고범서, 『교회와 국가』(서울: 범화사, 1984), 195쪽.

58)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서울: 두란노, 1998), 99-100. 한국교회의 복음주의 진영은 1981년 ‘복음주의협의회’와 ‘복음주의신학회’가 결성되면서 복음전도와 더불어 교회의 사회참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신학적 입장과 실천을 견지하기 시작하였다. ‘복음주의 진영’은 교단보다는 복음주의협의회와 복음주의신학회에 소속된 교회, 목회자와 신학자, 그리고 복음주의 계열의 평신도 지도자와 청년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복음주의 운동의 이상을 목회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신앙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 고자 했으며, 1980년대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운동과정에서 에큐메니칼 진영의 그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다, 90년대 이후 기윤실, 공선협, 경실련 등 새로운 시민운동단체를 탄생시키는 모체의 역할을 하였다.

59) 이정석, 「기윤실 10년 평가와 21세기 전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0주년 활동 자료집』(서울: 도서출판기윤실, 1997), 35.

한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였다.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란의 유명한 신학자요 정치가였던 카이퍼의 주장으로서 국가가 교회위에 있거나 교회가 국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밑에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 세계에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독립된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란 것입니다. 이것의 각 영역은 각각 영역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sup>60)</sup>

여기에서 손봉호는 ‘가정’, ‘교회’, ‘국가’가 각각 독립된 영역으로 있으며, 모두 하나님 밑에서 동등한 입장에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가능하지만, 종교인이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61)</sup> 이와 같은 손봉호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교회와 국가를 기구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카이퍼의 그리스도의 영역주권론에 기초하여 있다. 이것은 그와 그가 속한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에큐메니칼 진영과 마찬가지로 개혁교회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복음주의 사회참여 진영의 대표적 인물인 손봉호는 저항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칼뱅의 불복종, 즉 ‘수동적 저항’과 유사한 사상을 전개한다. 그는 “국가는 항상 불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비판적일 수 밖에 없으며,” “사회정의란 절대 투쟁 없이는 성취되거나 개선될 수 없으나, 교회는 ‘비폭력저항’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2)</sup> 이

60) 손봉호, 「현대적 상황에서 본 교회와 국가」, 『현대교회와 국가』(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97-98.

61) 앞의 책, 99.

62) 이정석, 같은 책, 34.

러한 손봉호의 관점은 기윤실의『행동지침』에도 반영되어 “시민불복종운동”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손봉호의 저항개념은 기본적으로 칼뱅의 소극적 저항권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복음주의 평신도 지도자인 손봉호의 교회와 국가관은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정치윤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을 화란의 개혁신학자 카이퍼가 ‘그리스도 영역주권론’으로 이어 받았고, 이 ‘그리스도 영역주권론’을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참여의 대표적 인물인 손봉호가 계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참여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을 거쳐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3. 칼뱅의 정치윤리가 끼친 부정적 영향: 보수진영의 정교분리론과 국가조찬기도회

1970, 80년대 한국개신교 진보진영이 칼뱅의 정치윤리에 영향을 받아 정치, 경제,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헌신하고, 교회의 예언자적 정신을 널리 알렸다면, 한국개신교 보수진영은 이에 대항하여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며 친정부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1972년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개신교 진보진영이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근거하여 유신체제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보수계열인 김의환은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문제”라는 글을 통해 교회는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만 정부를 향해 발언할 수 있지 그 외의 모든 정치적 행동은 잘못된 것<sup>(63)</sup>”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교분리를 주장하였다.<sup>(64)</sup>

63) 김의환,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문제”, 『신학지남』(1973. 3), 25-28.

64) 연구홍,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교회사적 근거”,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

1974년 11월에는 민청학련 사건과 진보진영 개신교회와 지도자들의 항거가 일어나자, 김종필 국무총리가 로마서 13장을 인용하면서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하며, 정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개신교 진보진영의 60여명의 성직자, 신학자들이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을 발표하고, “절대화된 권력이 인간의 권리를 유린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것에 대한 투쟁을 감행할 수 밖에 없다<sup>65)</sup>고 하여 칼뱅의 정치윤리에 근거한 교회의 사회·정치 참여를 확고한 입장에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성명이 발표되자, 보수교단 연합체인 한국예수교협의회(KCCC)는 곧 바로 “국가가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려하지 않는 한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고 비난하면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자들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6)</sup> 대한기독교협의회(DCC)도 로마서 13장에 수록된 국가관의 명령은 무조건적이며 예수와 바울도 로마 정부에 대항 한 적이 없기에 반정부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곧 공산 침략자들에 대한 이적행위라고 단언하였다. 이와 같이 보수 진영의 교회들은 마땅히 가져야 할 예언자적 사명을 포기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친정부적인 입장으로 일관하였다.<sup>67)</sup>

뿐만 아니라, 이시기 개신교 보수진영은 ‘국가조찬 기도회’를 시작하였는데, 김준곤 목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기도회는 대통령 예찬 일변도의 기도와 설교를 통하여 강력한 일인 독재를 구축해 가던 박정희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군사정부는 ‘국가조찬기도회’를 통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을 반공안보 논리로 정당화하는 등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의 정당성을 내외에 과시하기도 하였다.<sup>68)</sup> 특히 국가

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서울:한국신학연구소, 2005), 154-55.

65) 위의 글, 180-81.

66) 한국예수교협의회, “기독교 반공시국 선언문”, 『기독신보』(1974. 12. 7)

67) 연규홍, 위의 글, 155.

조찬기도회는 ‘정교분리’ 입장을 견지하면서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체제 유지 및 지지노선’을 취하면서 ‘반공 안보논리적 신앙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정권의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작동하였다.<sup>69)</sup>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 개신교 보수진영의 정교분리론과 국가조찬기도회는 진보진영의 사회·정치참여 운동에 대항하여 주장되고 개최된 측면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정교분리론은 칼뱅의 정치윤리에 영향을 받은 진보진영의 적극적 사회·정치참여에 대항한 보수진영의 신학적 논거이며, 국가조찬기도회는 진보진영의 정치참여를 비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신들도 정치에 깊게 개입한 보수진영의 왜곡된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였다. 그러므로 필자는 한국 사회·민주화운동을 견인해 낸 칼뱅의 정치윤리는 부정적으로는 개신교 보수진영으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군사독재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가조찬기도회와 정교분리론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 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그의 정치신학, 그리고 그것이 한국 개신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의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기초한 두 왕국을 받아들이고 있다. 어거스틴은 일찌기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도성,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도성’과 자기사랑에 근거한 ‘사탄의 도성’이 역

68) 『조선일보』(1977. 10. 23)

69) 김경재, 앞의 글, 326.

사 속에서 서로 병존하면서 대립, 갈등 속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두왕국에 관한 이해는 루터를 거쳐 칼뱅에게 영향을 주었다. 둘째로 칼뱅은 루터적 ‘두 정부론’을 수용하였다. 루터는 어거스틴적 두왕국론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후기 저작 속에서 ‘두 정부론’을 주장하였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두 가지 통치제도인 ‘영적 정부’와 ‘세속정부’를 만드셨다는 것이다. 한편 칼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 나타난 정치윤리는 그리스도 주권론이다. 칼뱅은 루터의 두정부론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존재이유와 존재근거를 더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세속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영적 정부를 돕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칼뱅의 국가관은 루터에 비해 국가에 대해 더 긍정적인 가치와 적극적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국가관은 칼뱅으로 하여금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나타나는 정치윤리에 있어서 ‘그리스도 주권론’을 펼치게 하였다. 즉, 신자들에게 세속영역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통치영역으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도록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칼뱅은 저항권 개념에 있어서 소극적 저항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로마서 13장과 베드로 전서 2장을 근거로 기본적으로 위정자에 대한 의무와 복종을 주장한다. 칼뱅은 악한 통치자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뱅은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반할 때, 또는 왕이 폭정을 일삼을 때, 하급관리들은 백성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지니며 이때 불복종과 같은 소극적 저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칼뱅의 정치윤리와 저항권에 대한 이해는 해방 후 한국 개신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사회 민주화와 인권 운동 과정에서는 주요한 신학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특히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은 1970년대와 80년대 김재준과 NCCK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

진영의 역사사회참여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칼뱅의 그리스도 주권론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이후 손봉호를 비롯한 복음주의 진영의 시민운동에도 중요한 신학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많은 원인과 이유가 있겠으나, 1970-80년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칼뱅과 개혁교회 전통의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 주권'사상의 실종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윤리와 정치신학적 차원에서 칼뱅 전통의 그리스도 주권론에 대한 보다 활발한 이해를 위한 연구와 실천을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김경재. 「장공 김재준의 정치신학: 신학적 원리와 사회, 정치적 변혁론」.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김명룡. 『열린신학, 바른 교회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7.
- 김명배. 「루터의 두 왕국론」.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_\_\_\_\_. 「복음주의 진영의 사회참여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 『선교와 신학』 제20집,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세계선교원, 2007.
- \_\_\_\_\_. 『해방 후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서울: 북코리아, 2009.
- 김의환. 「한국교회의 정치참여 문제」. 『신학지남』, 1973. 3.
- 김원환. 「존 캘빈의 삶과 사상에 대한 한 고찰」. 『숭실사학』 제16집, 서울: 숭실사학회, 2003.
- 김성진. 「칼뱅과 유럽질서의 변화」. 『현상과 인식』. 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가을호.
- 김재준. 『김재준 전집』 제1권. 서울: 한신대출판부, 1992.
- 박경수. 「칼뱅의 국가론」. 『교회의 신학자 칼뱅』,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 복음주의 운동』. 서울: 두란노, 1998.
- 박정신. 「구한말 조선에 온 칼뱅주의 구학과」. 『현상과 인식』, 서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2009, 가을호.
- 배경식. 「칼뱅의 신학에 있어서 NGO의 가능성에 관하여」. 한국칼빈학회 역. 『칼뱅연구』 제2집,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서철원. 「카이퍼의 개혁사상과 한국신학」. 『개혁사상』, 서울: 한국기독교사상연구소, 1989.
- 이덕주. 「김재준 목사의 편지」. 『세계의 신학』,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2003. 가을호.
- 이정석. 「기운실 10년 평가와 21세기 전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10주년 활동 자료집』. 서울: 도서출판기운실, 1997.
- 이형기. 『본회퍼의 신학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1.

- 이형기. 『역사적 맥락에서 본 루터의 두 왕국사상과 그의 직업관』. 『교회와 신학』 제14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1981.
- \_\_\_\_\_. 『기독교강요 요약』.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6.
- \_\_\_\_\_. 『세계교회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 연규홍. 『1970년대 한국민주화운동의 교회사적 근거』. 『한국개신교가 한국 근현대의 사회, 문화적 변동에 끼친 영향 연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윤철호.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실존』. 『예수 그리스도와 사회』, 서울: 한국장로교회출판사, 1993.
- 조용훈. 『칼뱅의 정치사상과 그 사회윤리적 함의에 대한 한 연구』. 『장신논단』 제38집,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2010.
- 손봉호. 『현대적 상황에서 본 교회와 국가』. 『현대교회와 국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8.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 운동(I)』.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 한국예수교협의회. 『기독교 반공시국 선언문』. 『기독신보』, 1974. 12. 7. 『조선일보』. 1977. 10. 23.
- 宮田光雄, 양현혜 역. 『국가와 종교』. 서울: 삼인, 2003.
- Reid, Stanford, 홍치모/이훈영 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Leith, John,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Bloesch, Donald, 이형기·이수영 역. 『복음주의 신학의 정수 II』.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Ramm, Bernard, 권혁봉 역. 『복음주의 신학의 흐름』.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5.
- Battles, Ford Lewis. *Interpreting John Calvin*. Baker Books, 1956.
- Bauke, Hermann. *Die Probleme der Theologie Calvins*. Leipzig: J. C. Hinrichs, 1922.
- Calvin, Joh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1559).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The Westminster Press, 1960.
- McGrath, Alister. *A Life of John*. Oxford, 2000.
- Moltmann, Jürgen. *On Human Dignity: Political Theology and Ethic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4.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by Harold Knigh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7.
- Park, Chung-Shin. *Protestantism and Politics in Korea*. Seattle and Lo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3.
- Ramm, Bernard. *The Evangelical Herita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 Schaff, Phillip.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IV. Michigan Eerdmas, 1979.

논문투고일 : 2010. 10. 31

심사개시일 : 2010. 11. 16

게재확정일 : 2010. 12. 08

---

• 국 문 초 록 •

---

이 논문의 목적은 갈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그에 나타난 정치윤리가 한국개신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논구하는 것이다.

갈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념은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이다. 갈뱅은 『기독교강요』에서 어거스틴적 두 왕국론을 수용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과 사탄의 도성이 세상의 종말까지 역사 속에서 갈등과 투쟁 하면서 병존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유형은 루터적 두 정부론이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악마의 세력을 제거하고 와해시키기 위해 두 다른 정부 즉, 영적정부와 세속정부를 세우셨다. 갈뱅은 『기독교강요』에서 이 루터적 두 정부론을 수용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그리스도주권론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미 삶의 모든 영역에 임재해 있으며 따라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을 순종의 제자애로 부르신다는 가르침은 개혁교회전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갈뱅은 『기독교강요』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 가르침을 주장하였다.

한편, 갈뱅은 저항권 개념에 있어서 부정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그는 로마서 13장 1절에 따라 백성들에게 권세에 순종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갈뱅은 저항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주장하였다. 하나는 폭력을 일삼는 독재자에게 저항할 권리와 다른 하나는 세속권세가 하나님께 대항하도록 할 때 저항할 권리를 인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갈뱅의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한국개신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루었다. 이 논문에 의하면, 한국개신교회는 1970-1980년대에 사회참여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에큐메니칼 진영은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보수진영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복음화에, 복음주의 진영은 1985년 이후로 복음화와 민주화에 헌신하였다. 그런데 보수진영을 제외하고,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은 갈뱅의 그리스도주권론과 저항권 개념의 영향아래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하였다.

**주제어** : 교회, 국가, 그리스도주권론, 에큐메니칼 진영, 복음주의 진영